

철마는 더 달리고 싶다...고성까지



◇지난해 12월 서울~춘천간 복선전철 개통식에서 위용을 드러낸 고속전철

고성군 국가 차원 교통망 확충 필요

주민들, 동해고속도로 속초~고성 기본설계 · 동서고속화철도 고성 연장 제기

동해안 최북단 자치단체인 고성군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서울 등 수도권과의 접근성 부족으로 '육지의 섬' 처럼 고립돼 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주민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가 차원의 기간 교통망 확충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현재 국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동해고속도로, 동서고속도로, 동서고속화철도 등 3개 대형 도로망 확충사업에서 고성군은 제외되거나 계획만 잡혀 있을 뿐 기본설계조차 되지 않아, 주민들의 정부에 대한 소외감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동해고속도로는 계획상으로 삼척~양양~속초~고성을 연결하는 것으로 돼 있지만, 속초~고성 구간 기본설계조차 수립되지 않

은 상황이다. 양양(하조대)~속초 구간은 2015년 12월 개통이 예정돼 있다.

동서고속도로는 서울~춘천~동홍천~양양간 이어지는 고속도로로 지난해 춘천~동홍천 구간이 완료됐으며, 현재 동홍천~양양공사가 진행 중이다. 이 고속도로는 양양에서 동해고속도로와 만나 속초까지 연결된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서울~춘천~속초를 연결하는 철도로 지난해 서울~춘천 구간 복선전철은 공사가 완료됐으며, 춘천~속초 구간은 기본설계비 30억원이 새해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속초~고성간 연결 계획은 이에 세워지지 않았다.

이처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기간 교통망 확충사

업에 고성군이 소외되고 있는 가운데, 고성 주민들은 동해고속도로의 속초~고성 구간 기본 설계 초기 착수와 동서고속화철도 고성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동해고속도로의 경우 속초에서 고성으로 연결하는 데는 큰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와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기본 설계 반영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서고속화철도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1일 열린 서울~춘천간 고속전철(복선) 개통식에서 춘천~속초간 건설에 대한 의지를 밝힌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2011년 새해 다시한번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 철도공단 자체 예산이나 정부 추경 예산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실시한 뒤 기본 설계용역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주민들은 예비타당성 조사 때 고성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논

의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훈석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동서고속화철도는 설악권 주민들과 강원도민들의 염원인데다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일단 속초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설악권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며, 그 이후에 고성 연장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최광호 기자

고성군 인근 국가 기간 교통망 계획

명칭	계획구간	비고
동해고속도로	(부산)~삼척~양양~속초~고성	2015년 12월 속초까지 개통. 속초~고성 기본설계 안함
동서고속도로	서울~춘천~동홍천~양양	양양에서 동해고속도로와 만나 속초까지 연결
동서고속화철도	인천~서울~춘천~속초	춘천~속초 기본설계 미반영, 속초~고성 계획 없음

고성신문 주주를 모집합니다

‘행복한 고성 만들기 · 행정과 주민의 가교 · 등산 밑을 밝히는 신문’ 이란 창간이념으로 새롭게 창간한 고성신문에서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할 주주를 구합니다.

사업목적

- ◇ 신문발행
- ◇ 지역문화 발전
- ◇ 홍보물 기획 · 제작
- ◇ 기타 부대사업

-1주의 금액 : 10,000원
-주권의 종류 : 1주권, 10주권, 100주권

문의 ☎033)681-1667

주식회사 고성신문